

올바른 산행(탐방)문화

소산산행문화연구소장 | 김홍주

1. 전제

우리 주위에는 산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산을 보고 산에 드나들며 살아야 하고 죽으면 산에 묻힌다. 우리는 산과 더불어 살아야 할 숙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산은 자연의 공간적 테두리이자 자연의 얼굴을 결정하는 매듭이 된다. 산은 우리자연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얼굴, 역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또 산의 움직이지 않는 보수적 영구적 타성은 산이 과거 지향이자 미래지향이라 할 수 있고 산은 우리 선대가 남겨준 틀림없는 과거의 유산이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의 유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고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어느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미래를 싣고 있다.

21세기는 많은 발전과 변화 그리고 풍요로움이 예상된다. 모든 질병이 극복되고 가난이 역사적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삶(웰빙)'을 살 수 있을가를 생각하고 그 것을 쫓고 있다. 그러나 그 '질 좋은 삶'의 핵심에는 자연과 사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산행도 질 좋은 삶의 한 방편이다.

산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산'이란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등산이란 말은 에베레스트 등반과 같은 고도의 기능과 많은 장비가 필요한 모험 탐험 개척 정복의 뜻을 풍기고 있다.

반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건강을 챙기고자 그야말로 생활의 일부로 늘 산에 가고 산에서 걷고 산에 오르는 것은 '산행(山行)'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일이나 주말이나 방방곡곡의 산을 찾는 특수한 현실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 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산행이라는 말은 썼으나 등산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 영어나 일본어에서도 등산과 산행의 용어는 구별되어있다.

우리도 이제 국민소득으로 보나 문화수준으로 보나 산행의 격을 높일 때가 되었고 올바른 산행문화를 정립해서 뿌리를 내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2. 올바른 산행문화의길

가) 조망문화(眺望文化)가 정착되어야한다.

우리 국토의 모습에서 좌우 수평으로의 모습은 잘 연구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지만 상하 수직으로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나라 사랑은 국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소백산에서 가야산과 덕유산이 보이고 치악산에서 북한산이 보이고 계룡산에서 지리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조망에서 산의 위치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국토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더러 고스락(정상:頂上)에 조망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잘 못되어 있어서 오히려 산의 위치나 모습을 그르치게 하고 있다.

적어도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찾는 산에는 국민의 교육차원에서 정확한 조망도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산림 내에서 단속해야 할 것이 많다.

자전거 오토바이 산행, 음향기기의 사용, 고성방가, 불 피우는 행위, 개울에서 손발을 씻는 등 물을 흐리는 행위 등은 못하게 해야 한다.

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유림 입산료 징수도 고려해야 한다.

국립공원 입장료 부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하나는 국립공원을 관리 운영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바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외국의 예를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다른 하나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가 재정문제다. 몇몇한 수입원이 있는데도 그 거대한 기구가 전적으로 지원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공단 존립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것이며 국가 재정 면에서도 불합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려한 사유림에 입산 할 때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적정 입산료를 산주에게 지불하는 주민의식이 필요하다.

라) 입장 예약제를 시험 실시 해볼 만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국립공원이나 사유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다면 입장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자연을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주말이나 봄가을의 수많은 입장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전산체계가 발달되어 있어 입장 예약제를 실시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마) 산림감시 요원에게 적어도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을 정도의 준 사법권을 갖게 해야 한다.

현재 광범위한 생태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공원 안의 자연 파괴를 강력하게 방지하려면 관리공단 단속요원의 단속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적어도 경찰관서까지의 구인권을 갖어야 한다. 이는 사유림 산주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바) 동식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잡는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

현재의 형벌정도로는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없다. 더 엄벌해야 하며 단속을 소홀히 하는 단속 요원의 처벌도 해야 한다.

사) 사전에 신고한 백두대간 종주자에게는 백두대간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백두대간 종주는 국토순례의 일종으로 권장해야 할 일이다. 신고한 종주자에게는 통과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맺는 말

올바른 산행문화를 이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이다. 철저한 홍보와 함께 온 국민에 대한 체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부터 교육과정에 '자연 사랑'의 항목을 넣어 그 실천을 체질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산도 주인이 있어 그들이 산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푸른 숲이 우거지고 그 숲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맑은 물과 신선한 산소를 공급 받고 있음을 기본적으로 온 국민이 알아야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 하여야 한다.